

# PHOTO ESSAY 사진산책

## 중간

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. 일상과 심의 중간 같은 사진.

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



도쿄 우에노 공원



서광준 촬영

회자정리(會者定離).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이다.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다. 회사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직 변경과 근무지 이동은 헤어짐을 동반한다. 직장 생활은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동료와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평소 원만한 관계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. 그렇게 친해진 동료들과 헤어질 때마다 늘 아쉽고 슬프다. 지난 30여 년간 새로운 근무지로 이동할 때마다 동료들과 헤어지는 것이 대부분 섭섭하고 아쉬웠던 걸 보니 꽤 괜찮은 직장 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. 관계와 소통을 잘했다는 증거다. 동료들에게 가시가 되지 않은 듯해 안심이다. 남은 직장 생활도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, 좋은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.

**이호준 Lee, Ho-Joon** • 언론학박사·포토에세이스트

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.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, 여섯 차례의 개인전과 일곱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. 포토에세이 <직조>와 <걸으면 보이는>을 출간했으며,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.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, 대학과 지자체, 공공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.

